

대학생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일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이현경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과정)**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창의성은 유창성, 독창성, 도전성으로 구성되었다. 전문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26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의 독창성, 도전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창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창업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의지에 대한 창의성의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둘째,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창의성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실습형의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의성, 유창성, 독창성, 도전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I. 서론

창의성을 우리 경제의 핵심가치로 하여 창조경제의 구현이 필요하다(김미란, 2013). 창의성 기반의 창업과 혁신을 통한 기업의 활동으로 가치와 고용의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 경제는 성장 할 것이다(박철, 강유리, 2010).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실화하기 전까지 전까지의 단계이며, 이후 단계를 혁신이라 할 수 있다(이문선 & 강영순, 2003). 다수의 연구자가 창의성을 혁신의 기초적 조건 혹은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Kanter, 1988; Staw, 1990, Amabile(1997)은 개인 창의성과 혁신을 연계하여 창의성이 개인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행동 유형이나 보다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김정인 & 이일한, 2014).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특성은 창업프로세스에서 수없이 부딪치는 역경들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된다(Shane, Locke & Collins, 2003). 그러나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김병남 & 박경선, 2015).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창의성을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논리성, 도전성, 개방성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둘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2.1 창의성에 대한 선행연구

Guilford(1967)는 창의성에 대한 하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민감성, 사고의 유창성,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독창성, 사고의 정교성의 다섯 가지 요인을 창의인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지적 특성으로 확인하였다. Amabile(1988)은 분야와 관련된 기술, 창의성과 관련된 기술, 과업 동기를 창의성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인으로 보고 있다.

2.2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기, 인지자원, 행동과정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다(Bandura, 1993). 창업이라는 과정과 환경이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은 창업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Shane, et. al. 2003).

2.3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

* lih2114@ca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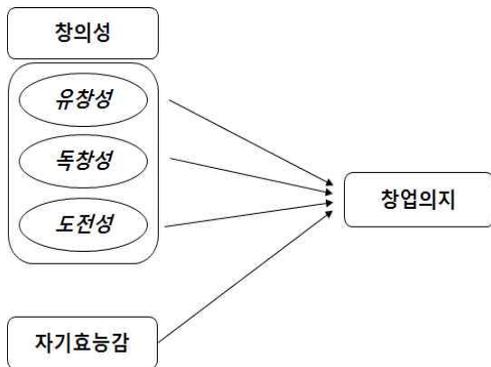
** pshope@hanmail.net

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된다 (Veciana et al. 2005).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창업가 특성은 창의성, 자기효능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창의성은 유창성, 독창성, 도전성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모형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창의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 대한 주요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병남(2015)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일상적 창의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유 & 양해술(2014)은 창의성향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유창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독창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도전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4.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특정 목표를 위해 독창적이고 유용한 산출물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 산출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속에 내재된 능력과 성향으로 정의하며, 유창성을 다량의 새로운 아이디어 생산, 융통성을 다른 개념 통합 원활히 연결, 독창성을 일상적으로 남과 다른 관점 유지, 논리성을 체계적인 사고, 표현, 구성능력, 개방성을 다른 생각 및 체계에 대한 수용,

도전성을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으로 정의한다(2013, 최승은).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동기, 인지자원, 행동과정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한다(Bandura, 1993). 창업의지를 잠재적 창업가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또는 창업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의사의 정도로 정의한다(Ajzen 1991; Crant, 1996).

4.2 측정문항

창의성의 측정을 위해 유창성 3문항, 독창성 4문항, 융통성 3문항, 논리성 3문항, 도전성 4문항, 개방성 4문항을 사용하였고 (Torrence, 1965; Guilford, 1950; 1967; 1968; Sternberg, 1999; Finke, Ward & Smith, 1992; 송인섭 & 김혜숙, 1999; Lingermann, 1982; Martindale, 1989; Amabile, 1988; 1989; 1996; 최승은, 2013), 창의성의 6가지 요인 중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으로 묶이지 않거나 요인부하량 값이 기준 이하인 융통성, 논리성, 개방성 항목을 삭제하여 최종분석에는 유창성, 독창성, 도전성 항목이 사용되었으며,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측정을 위해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Chen, Greene & Crick, 1998),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의지의 측정을 위해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Aponte & Urbano, 2005; Linan & Chen, 2009),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3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문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6월 14일 까지 2주 동안 실시되었으며, 설문 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창업강좌 수강생으로, 최종 265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기초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자 57.4%, 여자 42.6%, 학년은 1학년 30.6%, 2학년 69.4%, 계열은 인문사회계열 20.8%, 이공계열 53.2%, 예체능계열 17.0%로 나타났다.

4.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목적인 창의성과 창업의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LS 2.0을 이용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V. 실증분석

5.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표 1>와 같이 측정모형에서 각 차원의 AVE가 0.5 이상이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0.5~0.95 사이의 값이며(0.7 이상이 바람직함), 요인부하량의 t-값들이 1.965(또는 2.0) 이상으로서 유의하기 때문에(유의수준 0.05, t-값/CR(Critical Ratio) > 1.965, p<0.05)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u, 2012; Bagozzi & Yi, 1988;

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1995). t-값은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수행하여 나온 결과이다.

<표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변수	측정항목	요인 부하량	t-값	Composite Reliability	Cronbach's α	AVE
유창성	유창성1	0.902	67.451	0.908	0.850	0.767
	유창성2	0.868	35.918			
	유창성3	0.856	31.913			
독창성	독창성1	0.824	25.307	0.881	0.819	0.650
	독창성2	0.814	19.274			
	독창성3	0.691	13.660			
	독창성4	0.774	23.807			
도전성	도전성1	0.750	19.453	0.859	0.781	0.605
	도전성2	0.825	24.665			
	도전성3	0.865	32.316			
	도전성4	0.779	17.59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1	0.804	33.360	0.929	0.913	0.594
	자기효능감2	0.875	47.908			
	자기효능감3	0.829	34.373			
	자기효능감4	0.771	27.042			
	자기효능감5	0.792	20.172			
	자기효능감6	0.717	15.020			
	자기효능감7	0.556	10.664			
	자기효능감8	0.809	32.813			
	자기효능감9	0.741	19.156			
창업의지	창업의지1	0.904	77.955	0.949	0.935	0.756
	창업의지2	0.786	18.416			
	창업의지3	0.865	36.473			
	창업의지4	0.842	25.042			
	창업의지5	0.928	92.245			
	창업의지6	0.884	48.772			

신뢰성 지수

<표 2>는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행렬을 나타낸다.

<표 2>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구분	유창성	독창성	도전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유창성	1				
독창성	0.706	1			
도전성	0.660	0.687	1		
자기효능감	0.532	0.514	0.565	1	
창업의지	0.461	0.529	0.581	0.776	1

5.2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5.2.1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

PLS 분석 결과 <표 3>과 같다. 첫째, 내생변수의 R²값을 살펴보면 창업의지 .642로 매우 높게 나타나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내생변수의 중복성(redundancy)값은 창업의지 .137으로 나타나 예측적합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적합도(Goodness-of-Fit Index)는 .658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R ²	중복성	공통성
유창성			.767
독창성			.605
도전성			.650
자기효능감			.594
창업의지	.642	.137	.756
평균	.642		.674
전반적만족도		.658	

5.2.2 가설검증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4>에 요약하였다. 가설1-1~3을 검증한 결과, 독창성, 도전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창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검증결과
가설1-1	유창성→창업의지	-.113	.065	1.744	기각
가설1-2	독창성→창업의지	.185	.055	3.344	채택
가설1-3	도전성→창업의지	.142	.067	2.100	채택
가설2	자기효능감→창업의지	.658	.045	14.494	채택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개인특성 요인 중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창업강좌를 수강한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Smart pls 2.0을 이용하여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설1 '창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창의성 중 독창성, 도전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창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2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창조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창업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의지에 대한 창의성의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둘째,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면서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창의성의 특성 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창의성 증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려면 각 주체의 창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좀 더 세분화 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정리해보면,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본 집단을 한 대학의 창업강좌를 수강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둘째, 창의성의 개념 정립과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